



## "이규보의 풍류, 파리지앵도 즐기게 할 것"

기사입력 2019-02-01 04:28

벵자맹 주아노 홍익대 교수

한국 文人들의 글에서 발췌한 술과 차 즐기는 법 佛語로 펴내



/손진석 특파원

지난 28일 파리 풍피두센터 옆의 한 카페에서 수업을 덩수룩하게 기른 중년의 프랑스 남성을 만났다. 그는 유창한 한국말로 고려 문신(文臣) 이규보(1168~1241)의 명일우작(明日又作·내일 또 술을 마시자)이란 시(詩)를 이야기했다. "이규보 선생은 시, 거문고, 술이 어우러진 풍류를 제대로 즐긴 분이죠. '몸이 아픈 와중에도 술을 사양 못하니 죽는 날에 가서야 술잔을 놓으리라'라는 글귀가 멋지지 않나요."

벵자맹 주아노(50·사진)씨는 '마시는 방법'이란 책을 들고 환하게 웃었다. 홍익대 불어불문학과 교수인 그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인(文人)들이 쓴 글에서 술과 차(茶)를 즐기는 부분을 발췌해 불어로 번역해 이 책을 냈다. '한국의 먹고 마시는 100가지 모습'이란 주제로 2016년 '먹는 방법'을 펴낸 데 이어, 2년 만에 '마시는 방법'을 출간했다.

"파리 시내에 한식당이 100개가 넘어요. 김치, 불고기, 김밥 모르는 프랑스 사람 더 이상 없습니다. 한 차원 더 깊게 들어간 한국 문화를 접하고 싶어하는 프랑스인들한테 '서울에서 불고기 맛있는 식

당은 여기에요'라는 정도의 정보는 재미없고 시시하죠. 그런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 만든 책이예요."

주아노씨가 번역해 책에 담은 글은 김시습, 김삿갓, 이항 등 고려·조선시대 문장가의 글부터 박두진, 박재삼, 피천득 같은 현대 작가의 작품을 망라한다. 책을 펴면 서산대사의 '차시(茶詩)', 정몽주의 '돌술에 차를 끓이며'와 같은 옛 글은 물론이고 김소월의 '술과 밥' 같은 현대 작가의 문장도 불어로 접할 수 있다. 주아노씨는 "식도락이야말로 한 나라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계기"라며 "한국인들이 술, 밥, 차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먹는지를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글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는 이해를 돕도록 책 뒷편에 용어 해설을 달았다. 예를 들어 'gaedari-soban(개다리소반)'에 대해 불어로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술과 음식을 올려놓는 둥글거나 팔각형인 탁자'라고 적어놓는 식이다. 주아노씨는 이 책을 출간하고 나서 뿌듯한 나머지 강화도에 있는 이 규모의 묘지를 찾아가 막걸리를 무덤에 뿌리고 인사했다고 했다.

주아노씨는 한국의 식도락 문화에 푹 빠진 문화인류학자다. 파리의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에서 박사 학위를 땀고, 1994년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다. 그는 "인생의 절반은 프랑스, 절반은 한국에서 살았다"며 "한국의 먹고 마시는 문화가 워낙 매력적이라 놀러왔게 됐다"고 했다. 이 책을 내기까지 2년의 준비 과정을 거쳤다. 한국어와 불어에 모두 능통한 13명의 지인과 공동으로 작업했다.

지난 23일 파리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출간 기념회에서는 프랑스인 약 100명이 몰려 질문을 쏟아냈다. 불어권인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에서도 책이 판매된다. 주아노씨는 "다양한 한국 문화를 프랑스에 소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파리=손진석 특파원 aura@chosun.com]

[네이버 메인에서 조선일보 받아보기]

[조선닷컴 바로가기]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23&aid=0003425194>